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사용 단계 평가 체제 연구

신 서 영(부산해원학교)*

요약

본 연구는 국정도서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 구축과 관련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우선 국정도서의 질 관리 체제를 개발 단계와 사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 사용 단계의 질 관리 체제로서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평가체제 구축과 관련한 설문을 배포하고 그 중 설문에 참여한 159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점이었으며, 사용 단계의 교과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평균 4.02로 만족도보다 높았다.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구축 방안에 있어서, 평가의 주체는 교사(98.7%), 독립된 플랫폼 구축(62.2%), 정기평가(49.4%), 척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혼합한 문항(50.6%)을 선호하였다. 또 평가 결과는 ‘사용자로 인증된 사람에게만 공개(55.1%)’, 평가 결과 반영 시기는 ‘차기 교과서 개발 시’가 가장 많았다(41.0%).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되, ‘교과서 사용성’을 규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통해 교과서 사용자 모두가 부담없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질관리위원회 조직을 통해 평가 결과의 수정반영 여부를 심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평가 플랫폼에 이미 개발된 교과서와 사용자인 교사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용-평가 통합형 플랫폼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질 관리, 사용 단계 평가, 국정도서

I.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초등학교 1학년

* 제1저자, 교신저자: 부산해원학교 교사(tjudssam@naver.com)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에게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들을 위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8호, 2021. 3. 23., 일부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는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에 의거하며,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52책, 중학교 18책, 고등학교 18책으로 총 88책, 모두 국정도서로 개발된다.

사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가 이처럼 다양한 책으로 개발된 역사는 오래지 않다. 정인숙 외(2011)에 의하면, 교과서가 없이 교사용 지도서만 개발되기도 했으며(1987년), 교과서가 카드 형태로 개발되기도 하였다(1994년). 현재와 같이 학년군별 체계를 갖추고 교과목별로 학년 1책 혹은 2책으로 발행된 것은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와서야 비로서 시작되었다. 장애영역별로 교육과정이 개발되던 역사가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서 ‘기본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통일되고, 그에 따라 교과서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개정된 2008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2년 과정 내내 과목별 3수준, 3책으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교육내용, 교육경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교육과정도 일반학교와 동일한 학년군 체계를 채택하였다. 명칭도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바꿈으로써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어려운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를 더하였고, 명칭에 걸맞게 ‘일반학생과의 연계성’, ‘교육경험의 다양화’를 표방하고 양질의 교과서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공통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일반학교 교사의 교과서 만족도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대한 초등교사의 만족도가 평균 3.5점~3.87점(서지영 외, 2014)을 고려하면 특수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76점~3.6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최진혁 외, 2019). 그럼에도 89% 정도는 활용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수업에서 교과서를 활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최진혁, 2019). 그 이유로 김성진(2015)은 교과서 사용의 이점을 체계적인 진도 관리와 수업 준비에서의 수월성 등으로 제시했고, 신서영(2020)은 교육과정과 현장의 매개체요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으로는 교과서의 난이도와 학생들의 수준 불일치, 내용 오류 등을 꼽으며 질 관리가 필요함이 지적되고 있다(최진혁 외, 2019).

교과서의 질 관리는 개발과 활용,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발 측면에서의 질 관리는 교과서 발행 체제마다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정도서는 개발 기준 및 유의점 등의 개발자 안내와 집필세목 심의, 원고본 심의, 개고본 심의, 현장 검토 등이 질

관리를 위해 사용된다(신서영, 2020). 검정도서는 검정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며, 검정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보인다. 인정교과서의 경우 2차에 거쳐 기초심사와 본 심사를 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의 경우도 자체심사결과서를 제출하여 교과서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용 측면에서의 질 관리는 현재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이용한 정기 점검과 현장교사들의 교과서114를 통한 수정건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경우는 국정도서로 발행되는 까닭에 국정도서의 질 관리와 동일한 양상으로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교과서 편찬기관 공모 공고가 난 이후 1차적으로는 경합을 통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여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차적으로는 집필세목, 원고본, 개고본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현장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반영하고, 결재본을 최종 제출하여 승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의 질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은 사용 측면에서의 질 관리 체제가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습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적 요구가 사용 단계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이러한 요구는 개발 단계에서 미리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특수교사 159명의 의견을 받아 국정도서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발과 사용, 평가가 통합되는 질 관리 체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질 관리 체제는 교과서의 단순한 오류에 대한 수정·반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가 갖고 있는 수준과 특성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 체제

1. 개발 단계에서의 질 관리 체제

국정도서로 개발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는 개발 단계의 질 관리에 대해 법 규정으로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 검정도서의 경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7조(검정실시 공고), 제8조(검정신청), 제9조(검정심사), 제10조(합격결정) 등의 조항을 명기하여 개발 단계의 질 관리 절차, 내용, 방법 등을 명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인정도서의 경우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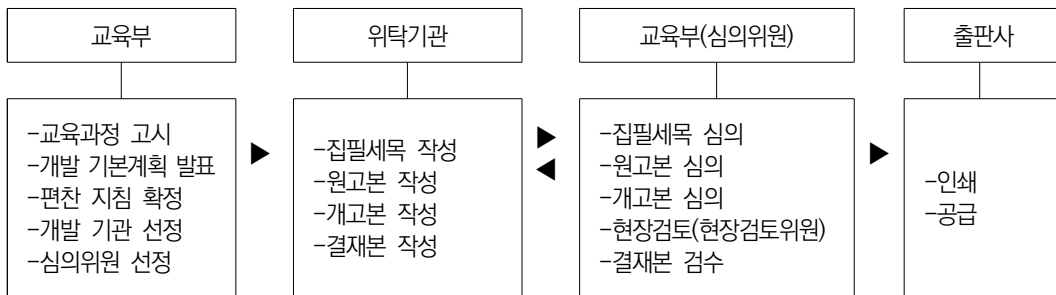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제15조(인정기준),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등을 조항에 명기하여 개발 단계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도서에 해당하는 제4조와 제5조의 경우는 ‘개발’이라는 용어가 아닌 ‘편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인정과는 다른 절차임을 보인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국정도서) 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국정도서의 편찬)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검·인정도서와 대비되는 이 조항은 물론 국정도서의 질 관리가 되고있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개발하므로 양질의 편찬위원회를 선정하여 교과서 개발 방향 및 편찬상의 유의점을 연수하고, 교육부에서 위촉한 심의위원을 통해 개발기간 동안 엄격한 심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국정도서의 개발 과정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는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이루어지는데, 현행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도 일반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고시(교육부고시 제2015-81호, 2015.12.1.)된 이후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안에 포함되어 고시되었다(교육부고시 제2016-87호, 시행2016.1.12.).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각 과목별로 특수교육 국정도서의 편찬 기관을 공모하고 이를 승인·심의·생산·공급하는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최진혁 외, 2019:63). 즉 총괄적인 질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사용 단계에서의 질 관리 체제

「교과용도서예관규정」에서 사용 단계의 질 관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편” 이고 다른 하나는 “수정” 이다(「교과용도서예관규정」 제2조). ‘개편’ 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혹은 부분개정,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교과용도서 교과용도서의 총 쪽수(음반·영상·전자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총 수록 내용)의 2분의 1을 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것으로서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에서는 ①항에서는 수정 가능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라고 함으로써 수정 의무를 밝히고 있다. 또 27조에는 “교육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하고 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만 개편이 국한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국정도서로 개발되고 있는 기본교육과정 교과서가 교육과정 개정고시 없이 개편된 예는 없다. 다만, 수정은 매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서114를 통한 민원 제기 사항과 교과서 모니터링단에 의한 정기 점검을 통해서이다. 우선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를 통한 수정·보완 요청 사항에서 ‘특수’ 를 검색해보면 31건이 검색된다(2021년 10월 3일 기준). 이는 2014년 1월부터 개시된 것임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건수이다. 잘 알려져있지 않아서이거나 접근성이 좋지 못하거나, 혹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굳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다음으로 교과서 모니터링단에 의한 정기 점검을 통한 수정이다. 교과서 모니터링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해 공지사항란에 모집 공고를 내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해당 교과를 실제 가르치면서 교과 전문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객관적 자료 증빙을 통해 선발되며, 이들은 표현·표기상의 오류(오자, 탈자, 띄어쓰기, 표준어 사용, 용어 통일 등 단순 오류), 표현의 부정확성(문장의 명료성, 어휘 수준 고려, 추가 설명, 중복 내용), 삽화, 사진, 도표의 부적절성(삽화 및 사진 교체, 지도 오류, 통계자료 업데이트), 내용적 오류, 논리성 결여(내용오류, 편향성, 계열성 부족, 불필요한 활동),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양성평등, 인권교육, 다문화, 재외 동포 등 관련 내용 검토)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보고서는 개인별, 팀별로 작성하며 매월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모니터링단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공고 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과서모니터링단 워크숍 사진이 게시되어있

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방법으로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모니터링 의견은 매해 교과서 집필자에게 수정하도록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나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의견을 통한 수정 조치와 같은 기존의 사용 단계의 질 관리는 교과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에 특수교육 교과서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이 2014년 1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면, 2014년 이전에 조사된 만족도 결과(김경신 외, 2011; 정인숙 외, 2011, 이동원, 2014)가 최근 조사된 만족도 결과(최진혁 외, 2019)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를 통한 수정반영 조치가 교과서 질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1종 단일 국정교과서로 발행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새롭고 획기적인 질 관리 체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특성을 안고 다양한 수준 차를 보이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특수교육이므로 특수교사가 요구하는 교과서는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사용자 각각이 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질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사용 단계 평가 연구를 위해 전국의 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메신저(예: 특수교사 연구회 단톡방, 밴드, 카페 등)를 통해 설문을 배포하였다. 메신저 설문의 특성 상 응답률은 높지 않았으며, 응답을 회신받은 160부 중 응답 일부가 누락된 1부를 제외한 1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인별 구성은 <표 1>과 같다.

근무지의 경우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99명, 63.5%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 57명, 36.5%보다 더 많았다. 지역규모로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85명, 54.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가 100명, 64.1%로 가장 많았다. 경력으로는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교사가 44.9%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 교사가 9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변인별 구성표

구분	구성	빈도(N)	백분율(%)	합계
근무지	특수학교	99	63.5	159 (100%)
	일반학교 특수학급	57	36.5	
지역규모	대도시	85	54.5	159 (100%)
	중소도시	50	32.1	
	군·읍·면	21	13.5	
학교급	초등학교	100	64.1	159 (100%)
	중학교	22	14.1	
	고등학교	34	21.8	
경력	5년 미만	19	12.2	159 (100%)
	5년 이상~15년 미만	70	44.9	
	15년 이상~25년 미만	58	37.2	
	25년 이상	9	5.8	

2. 설문지 구성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국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사용 단계 평가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박서현 외(202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후, 교육부의 교과서 담당 연구관, 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관련 연구위원, 교육과정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과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현장교사 2인, 특수교육 박사학위 소지 현장교사 1인 등 5명의 전문가에게 2차례 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수	계
교과서 만족도와 평가 체제 필요성	교과서 만족도	1	2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 체제 필요성	1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 체제 구축 방안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의 주체	1	4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 체제 구축처	1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 문항 유형	1	
	사용 단계 교과서 평가 시기	1	
교과서 평가 결과 처리	평가 결과 공개 수준	1	2
	평가 결과 반영 시기	1	

설문 문항은 처음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나, ‘사용 단계 평가 체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질문하는 것이 좋겠다’, ‘의미가 중복되거나 무엇을 묻는지 애매한 문항의 의미를 명료화하고, 합쳐진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은 평가 문항 개발 연구로 별도 진행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과서 만족도와 사용 단계에서 교과서 평가 체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2문항, 구축방안과 관련하여 교과서 평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면 어디에(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사용자 전체가 참여하는 교과서 평가 문항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사용 단계의 평가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등의 4문항, 평가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평가 결과는 언제 수정 반영하는 것이 좋을지 등의 2문항이다.

3. 자료 분석

온라인 설문으로 응답을 받은 설문을 1차적으로 엑셀파일로 내려받아 유효한 자료인지, 결측치 및 불성실 응답문항이 있는지 점검하였다. 이후 SPSS25.0으로 인코딩하여 기술 통계 및 추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로는 각 질문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알아보았고, 집단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또 집단별로 보인 평균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 통계를 실시하였다. 추리 통계는 독립표본 t검증과 이원변량분석(F검증)을 하였으며, 등분산성을 가정하고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 중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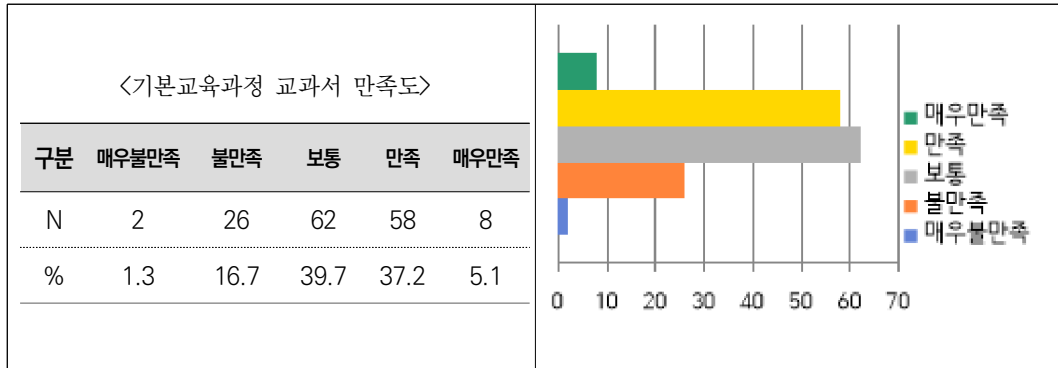
IV. 연구 결과

1. 교과서 만족도 및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필요성

1) 교과서 만족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며, 응답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 중 만족하는 집단의 백분율(만족 37.2%+매우 만족5.1%)이 만족하

지 못한 집단의 백분율(불만족16.7%+매우불만족1.3%)보다는 높았으나 중간에 해당하는 ‘보통’ 집단의 백분율(39.7%)이 가장 높았다.



〔그림 2〕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특수교사의 만족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만족도가 배경변인별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특수교사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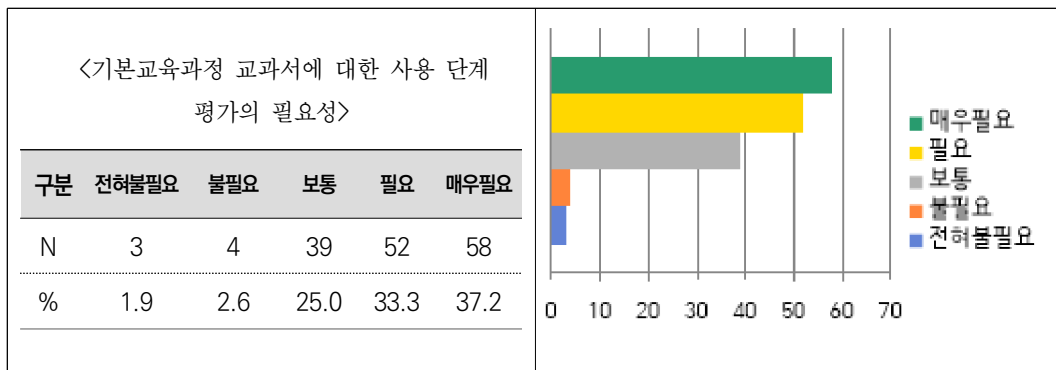
구분	구성	평균(M)	표준편차(SD)	t/F	사후검증
근무지	특수학교	3.24	.870	.444	-
	일반학교 특수학급	3.35	.896		
지역규모	대도시	3.18	.875	.179	-
	중소도시	3.36	.851		
	군·읍·면	3.52	.680		
학교급	초등학교	3.31	.884	.716	-
	중학교	3.32	.839		
	고등학교	3.18	.758		
경력	5년 미만	3.68	.820	.182	-
	5년 이상~15년 미만	3.23	.837		
	15년 이상~25년 미만	3.22	.839		
	25년 이상	3.22	.972		

근무지에 있어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24)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

는 특수교사(M=3.35)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근무학교가 소속된 행정구역의 규모에 있어서 대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18)보다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36),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군·읍·면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52)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학교급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18)보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31)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32)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경력에 있어서 15년 이상 근무한 특수교사(M=3.22)보다 5년이상 15년 미만 특수교사(M=3.23), 5년 이상 15년 미만 특수교사보다 5년 미만 특수교사(M=3.68)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2)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을 알아보았으며, 응답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 중 사용 단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백분율(필요 33.3%+매우필요37.2%)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집단의 백분율(불필요 2.6%+전혀불필요1.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중간에 해당하는 ‘보통’ 집단의 백분율(25.0%)은 매우필요, 필요에 이어 3순위에 그쳤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에 해당하는 ‘만족, 매우만족’의 합이 42.3%인 것을 고려하면,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자로서 특수교사들은 교과서 사용 중 느끼고 있는 다양한 불만족 사항들에 대한 의견 계진 통로로서 사용 단계 평가가 필요하다(70.5%)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배경변인별로 집단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리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근무지에 있어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4.01)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4.02)의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근무학교가 소속된 행정구역의 규모에 있어서 대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4.12)보다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96), 중소도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군·읍·면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71)의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학교급에 있어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4.24)보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96)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보다 중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M=3.91)의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경력에 있어서 5년 이상 15년 미만 특수교사(M=3.80)보다 5년 미만 특수교사(M=3.89), 5년 미만 특수교사(M=3.89)보다 25년 이상 특수교사(M=3.80), 25년 이상 특수교사(M=3.80)보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특수교사(M=4.29)의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경력별 인식 차는 통계적으로 .05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므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15년 이상 25년 미만의 교사가 5년 이상 15년 미만의 특수교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력별 인식의 평균은 다른 배경변인보다 표준편차가 커서, 동일 경력이라 할지라도 인식의 차는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표 4>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사용 단계 평가의 필요성

구분	구성	평균(M)	표준편차(SD)	t/F	사후검증
근무지	특수학교	4.01	.985	.444	-
	일반학교 특수학급	4.02	.896		
지역규모	대도시	4.12	.969	.197	-
	중·소도시	3.96	.989		
	군·읍·면	3.71	.717		
학교급	초등학교	3.96	.953	.298	-
	중학교	3.91	.868		
	고등학교	4.24	.987		
경력	5년 미만	3.89	1.049	3.103*	15년 이상-2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5년 이상~15년 미만	3.80	1.001		
	15년 이상~25년 미만	4.29	.773		
	25년 이상	4.11	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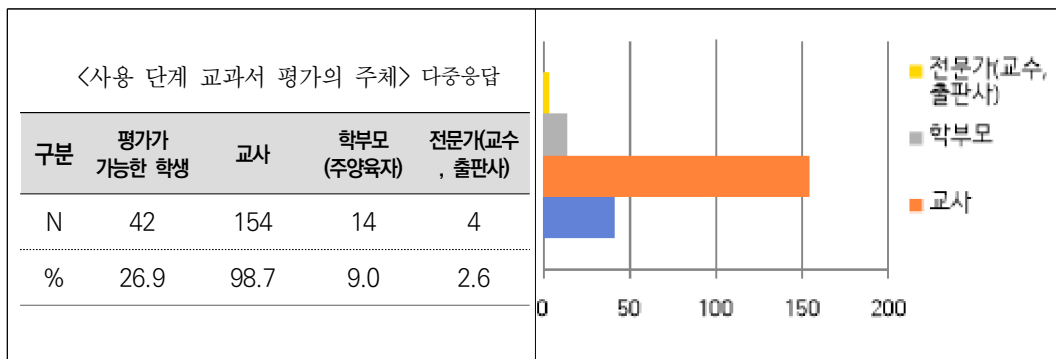
*p<.05

2. 사용 단계에서의 평가 체제 구축 방안

국정도서로 발행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에서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면 누가, 어떻게, 언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1)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 평가의 주체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 단계에서 평가한다면, 누가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다중응답을 허용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98.7%가 교과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평가가 가능한 학생(26.9%), 학부모(주양육자, 9.0%), 전문가(교수, 출판사) 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특수교사 스스로 교과서 사용자이자 평가자로서 특수교사의 위상 및 책무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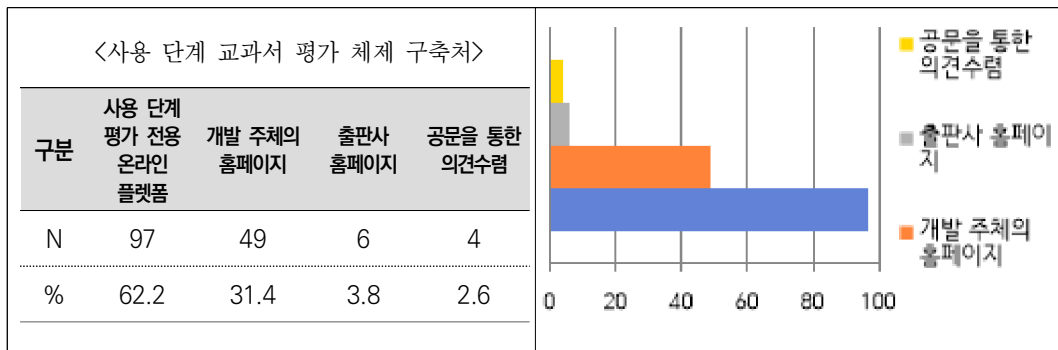


[그림 4]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의 주체

2)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 평가 체제 구축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 단계에서 평가한다면, 평가 체제를 어디에 구축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평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예: 인터넷 몰의 카테고리 형태로 해당 학년군 및 교과와 교과서를 찾아 들어가 평가하는 형태)” 등과 같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응답은 한 가지만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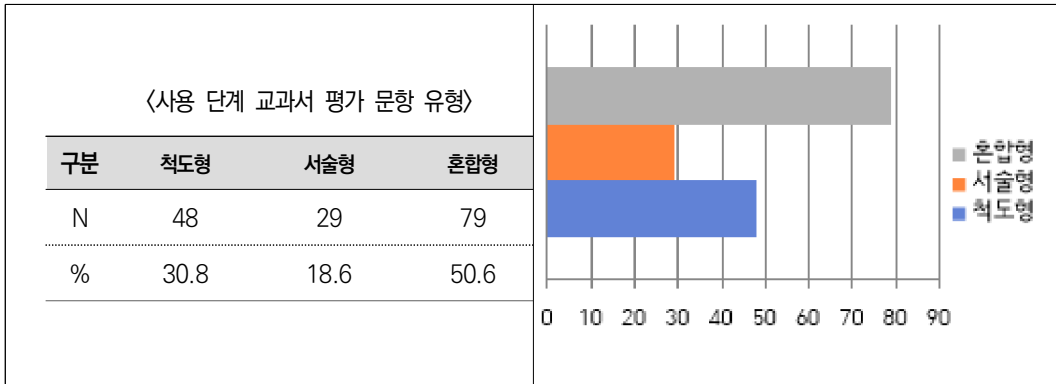
[그림 5] 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62.2%가 사용 단계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교과서 평가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발 주체, 즉 국립특수교육원의 홈페이지에 하위 메뉴로 구성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31.4%), 그 다음으로 출판사의 홈페이지(3.8%)를 이용해서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문을 통한 의견수렴 체제로 가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특수교사도 2.6%였다. 이러한 인식은 사용 단계에서 교과서 평가를 위해서는 독립된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의 평가가 뚜렷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5]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체제의 구축처

3)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 평가 문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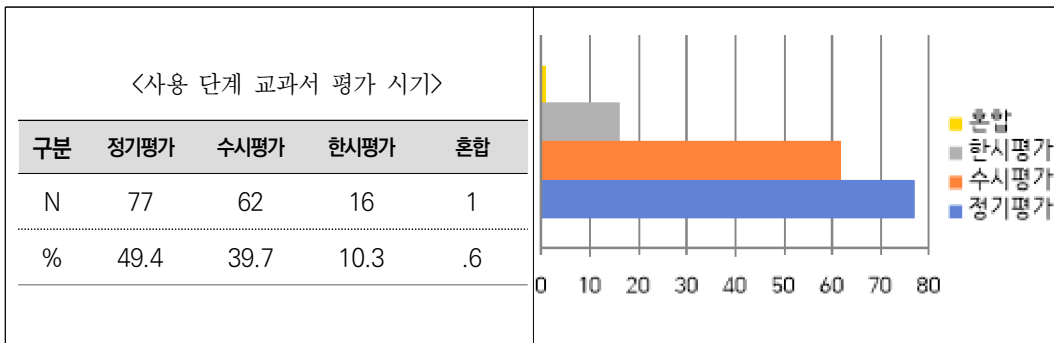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 단계에서 평가한다면, 평가 문항의 유형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척도형(예: 5점 척도)”, “서술형(예: 유튜브 콘텐츠 댓글 형태)”, “혼합형(예: 영화나 서적 평가처럼 척도형 만족도 표시 이후 의견 제시)” 등과 같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응답은 한 가지만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6] 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50.6%가 사용 단계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문항은 척도형과 서술형을 결합한 혼합형 문항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척도형(30.8%), 서술형(18.6%)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과서 사용자로서 특수교사가 척도형 응답 이외에도 개별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문항의 유형

4)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 평가의 시기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를 사용 단계에서 평가한다면, 평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정기평가(예: 매학기/매학년 일정 기간 평가)”, “수시평가(예: 시기를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평가)”, “한시평가(예: 교과서가 개발되어 현장에 보급되는 해에만 평가)” 등과 같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응답은 한 가지만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7] 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49.4%가 사용 단계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평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정기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시평가(39.7%), 한시평가(10.3%), 혼합(6%)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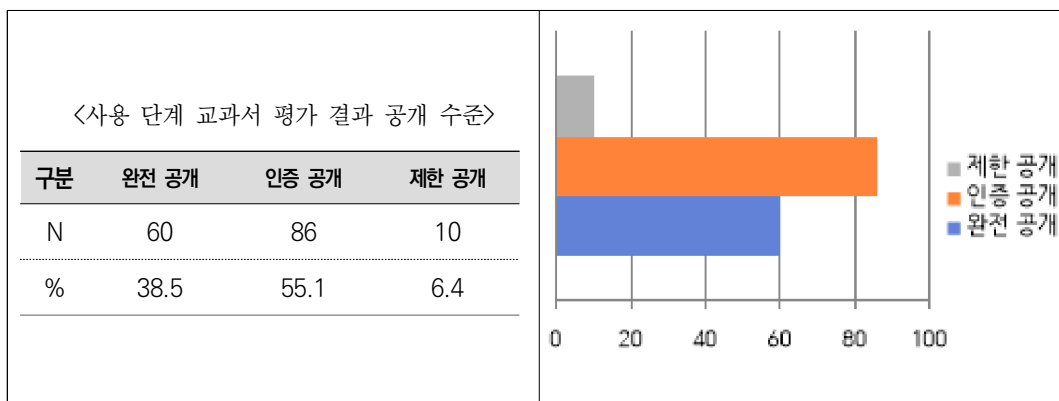


〔그림 7〕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의 시기

3. 사용 단계에서의 평가 결과 처리

1) 평가 결과 공개 수준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 결과의 공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완전공개(예: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완전공개)”, “인증공개(예: 교과서 사용자로 인증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공개)”, “제한공개(예: 평가자와 해당 출판사, 교육부 업무 담당자 외에는 비공개)” 등과 같이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응답은 한 가지만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55.1%가 사용 단계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결과는 교과서 사용자로 인증된 사람만 볼 수 있는 인증공개가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완전공개(38.5%), 평가자와 해당 출판사 및 교육부 업무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한공개(6.4%)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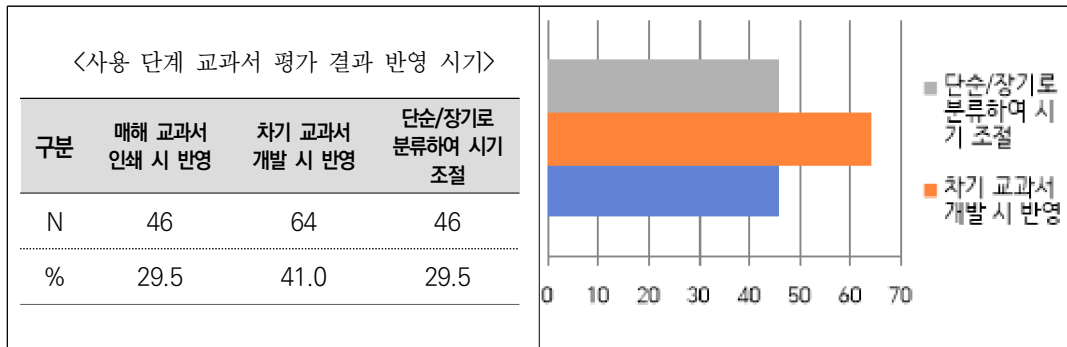


[그림 8]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결과 공개 수준

2) 평가 결과 반영 시기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 결과는 언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선택지는 “매해 교과서 인쇄 시 반영”, “차기 교과서 개발 시 반영”, “단순 수정과 장기 수정으로 분류하여 시기를 조절” 등 3개 중 한 가지만을 택하도록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그림 9] 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41.0%가 차기 교과서 개발 시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매해 교과서 인쇄 시 반영”, “단순 수정과 장기 수정으로 분류하여 반영 시기를 조절” 두 가지가 29.5%로 같은 백분율의 인식을 보였다. 단순수정과 장기 수정으로 분류하여 반영 시기를 조절하자는 의견보다 차기 교과서 개발 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은 이유는 만족도와 관련지어 유추해보면,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용선정 및 구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9〕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결과 반영 시기

V. 논의 및 결론

국정도서로 발행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해 특수교육 현장에서 교과서의 주된 사용자라 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사용 단계의 평가 체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의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약 3.3점으로 크게 높지 않았으며, 사용 단계의 교과서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평균 약 4.02였다. 만족도 점수의 평균은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최진혁 외(2019)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만족도 평균 3.15점과 유사했다. 일반학교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서지영 외(2014)의 국정도서에 관한 만족도 평균 3.5~3.8점 및 박서현·신서영(2019)의 전반적인 교과서 만족도 평균 3.74점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이다. 사용 단계에서 교과서 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은 박서현·신서영(2019)의 평균 3.90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이렇듯 특수교사의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평가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만족도는 더 낮고 사용 단계 평가(사용자 중심 평가)의 필요성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교과서 질 관리에 있

어서 사용 단계의 적극적인 요구를 피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는 사용 단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주체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평가 체제는 독립된 플랫폼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평가 문항은 척도형과 개방형을 결합한 형태를 선호하였고, 평가 시기는 매학년이나 매학기 중 일정 기간을 할애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박서현·신서영(2019)의 연구결과에서 평가의 주체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는 82.8%, 중학교 교사는 81.4%, 고등학교 교사는 79.9%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98.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특수교사가 현장에서 교과서의 질 관리 역할에 대한 강한 책무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평가 문항의 경우도 본 연구결과에서 특수교사가 혼합형을 가장 선호했듯(50.6%), 박서현·신서영(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반교사 역시 혼합형을 가장 선호했다(64.9%). 평가 시기의 경우 본 연구결과에서 정기평가를 선호했듯(49.4%), 박서현·신서영(2019)의 연구결과에서도 일반교사 역시 정기평가를 가장 선호하였고(68%), 다음으로 수시평가(30.7%)를 선호하였다. 하지만 일반학교 교사에 비해 수시평가의 요구가 더 많은 것(39.7%)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시로 요구사항이 도출된 까닭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는데, 완전공개보다는 교과서 사용자로 인증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한 인원이 더 많았고, 평가 결과는 차기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박서현·신서영(2019)의 연구에서는 평가 결과 공개여부를 공개와 비공개로만 조사하였는데, 공개를 요구한 비율이 초등학교 84.6%, 중학교 83.7%, 고등학교 87.5%였다. 이러한 결과는 검·인정 도서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학교에서 교과서 선택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는 국정도서로서 단일종으로 개발되는 까닭에 평가 결과가 교과서 선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로 인증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으며(55.1%), 이런 결과는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수정반영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현재와 같이 국정도서로 유지할 경우, 교과서 사용 단계에서 도출되는 실질적인 교육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사용자 평가 체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사용자 평가 플랫폼은 개발에 다시 환류될 수 있는 질 관리 위원회가 구축되어 평가 의견을 채택 혹은 기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인증된 자들에게는 공개되어 평가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질 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과서 사용자 평가는 교과서 사용자인 특수교사 전수가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사용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리커드 척도형 문항과 개별적 의견을 게진할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이 결합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적인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에 안내해야 할 것이다.

결론에 덧붙여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 관리를 위한 사용 단계 평가 체제 구축 방안에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기본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생들은 표준화된 내용과 방법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이질적인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교육용 콘텐츠(학습지, 영상자료, 소리자료, 조작자료 등)가 함께 개발되어야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질이 높다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적합하고 정확하고 매력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의 사용 단계 평가 시스템은 개발-사용-평가가 통합된 일체형 플랫폼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합해도 국정 1종 단일도서로 개발되는 까닭에 88책에 지나지 않는다. 플랫폼에는 기본적으로 개발된 교과서가 탑재되어있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이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관련 자작 자료를 업로드하여 자료를 공유하며, 교과서를 평가하고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게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 교육현장에 구축되고 있는 블렌디드러닝 교실과도 접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의견이 게진될 경우, 이것을 수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질 관리 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이다. 질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전문가, 출판사 관계자, 교육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교과서 수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요청을 검토하여 오탈자나 표기·표현의 오류 등과 같은 단순수정의 경우 수정명령을 하며, 내용수정의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교과서 사용자로서의 교사가 해당 성취기준에 대한 자작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원할 경우 인증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정인숙·강영택·김미선·김석진·김희규·박재국·박희찬·이인·송영준·신현기·전병운·정동영·한경근·한동기 (2011).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체제 개선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서지영·김혜숙·백경선·가은아 (2014).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등 1~2학년군 교과용도서 개선 방안 연구. CRT 201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서현·신서영(2019). 교과서 사용자 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현장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최진혁, 박재국, 정동영, 김대용, 김일수, 김은라, 송은숙, 정현우, 박단아, 이상로 (2019).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천안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성진(2015).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중등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인식 및 적용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서영(2020). 기본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특수교사의 사용자 평가 및 환류 체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19호]
- 교육부(201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2015-81호, 2015.12.1.]
- 교육부(2016).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교육부고시 제2016-87호]
- 김경신·김미경 (2013), 기본교육과정 1~2학년군 국어과와 수학과 교과서의 적용 실제와 과제, 발달장애연구, 17(3), 1-25.
- 이동원 (2014). 2011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과학과 교과서에 대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 분석. 지적장애연구, 16(3), 1-23.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2021). 민원신청- “특수”
https://www.textbook114.com/portal.jsp?req_P=list&menu=1&sub=2&sidemenu=1&sidesub=2&board_id=A4&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cate (검색일: 2021.10.3.)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2021). 공지사항- “교과서 모니터링단”
https://www.textbook114.com/portal.jsp?req_PAGE=board&req_P=view&menu=4&sub=3&sidemenu=4&sidesub=3&board_id=c4ca4238a0b923820dcc509a6f75849b&currPage=1&board_no=7540 (검색일: 2021.10.3.)

게재신청일: 2021. 11. 30.

수정제출일: 2021. 12. 24.

게재확정일: 2021. 12. 26.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Stage of Use for the Quality Management of National Textbooks in the Basic Curriculum of Special Education

Seoyoung Shin(Busan Hyewon Schoo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special teach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valuation system in the textbook use stage to manage the quality of textbooks developed as government-run books, and proposed a plan to establish a textbook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For research,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was examined as a development stage and a use stage. And then, the necessity of a use stage evaluation system was raised as a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the use stage. Next, in order to find a way to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in the use stage, the survey responses of 159 special teachers nationwide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satisfaction with textbooks of special teachers using basic curriculum textbooks was 3.3 points, and the perception that textbook evaluation at the stage of use was 4.02 was higher than the satisfaction. In the method of establishing a use-stage evaluation system, teachers (98.7%), independent platform construction (62.2%), regular evaluation (49.4%), and questions (50.6%) mixed with scale questions and open questions were preferred. In addition, the evaluation results were “disclosed only to those certified as users (55.1%), and the timing of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was “when developing the next textbook” (41.0%).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valuation platform to establish a system for evaluating the use of basic curriculum textbooks, but to identify “textbook usability” so that all textbook users can evaluate it without burden and to review the revision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the Quality Management Committe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operate an integrated development-use-evaluation platform by allowing the evaluation platform to be equipped with textbooks already developed and various contents produced by teachers who are users.

Key words: Basic curriculum textbooks for special education, quality management, evaluation of stages of use, government-issued textbook